

관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남측 천주교와 개신교 공동체인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평양뉴스

인터뷰

18년에 이어서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 ©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기독교일보가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인권 사역을 펼치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을 만났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Q7.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또 남편인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그루터기 신자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 그 때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신 것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고난의 시기 한참 힘들 때, 아버지께서 항상 특정한 방향으로 앉아서 머리 숙이고 주무시지는 않는 데 계속 몸을 흔드셔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 아버지가 기도를 하셨구나’ 싶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전쟁 시기 태어나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당시 아버지가 영아세례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나이라 말을 또 잘못하면 집안이 다 추방당하니까 (말을 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박해는 정말 심하잖아요? 기독교를 아편으로 분류하고 김일성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걸 아니까 부모님은 저의 입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지 한 번, 아버지께서 “신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 한다”는 한탄을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 때 어린 마음에 ‘아 우리 아버지는 신을 믿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살 때 북한의 장진호 전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연합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막연히 기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인지도 몰랐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국에 와서야 접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자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단지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물론 마음의 감동도 있고 영접도 했지만,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게 된 계기는 2007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때 교회 청년 한 분이 히브리서 4:6을 보내주면서 힘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위로가 됐었죠. 이후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너무 심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에는 다윗처럼 시편을 읊기도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 그동안 닫혔던 영적인 것들이 많이 열리며 더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장은 평생 가는 것이기에, 저는 지금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데도 1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믿는 탈북민들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탈북민이 교회 갔다가 정착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큰 도움보다도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와서 말을 걸

어주고, 불편한 것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말 붙여 주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발을 붙이는 데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는 힘이 있죠. 말씀이 들어가면 닫혔던 마음이 많이 열리고 영혼 구원이 이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베드로 목사님 만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2010년 안양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독일에 통일전문가 국의 연수를 갔었습니다. 당시 동독 니콜라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신 이유는 독일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광장 밖으로 나와 기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같이 예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적인 통일을 주셨다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니콜라이 교회에 제가 가진 돈도 다 헌금하고 우리 한반도에도 그런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독일에 가서 중앙기록 보존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연세대 통일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SNS에 정베드로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통일광장기도회를 한다는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해서 정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또

목사님이 인권활동을 하고,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1년 반 정도 감옥생활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저도 가족이 인권 집해를 당한 피해자이기에, 북한인권 봉사활동을 목사님 단체에서 하게 되면서 목사님과 인연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Q8. 여성의 몸으로 어려운 북한인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은 극복하셨나요?

사실은 북한 인권 활동을 처음 하면서 3년 반 정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거의 매일 울 정도로. 처음 1년 반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뒤 2년, 3년은 정말 울기도 없이 이 활동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이 일에 대해 남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북한인권’ 하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인권’은 정치를 넘어 ‘사람’과 ‘가족’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불어 인권 활동을 하는 것은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탈북민 출신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사람인데, 정부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감수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NGO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운을 잃거나 낙심했을 때 정 베드로 목사님도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었고, 더불어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교회들이 동참해 주고 그래서 극복이 가능했었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 땅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또 우리 국민들도 강제 역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사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나서 주신다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대통령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축이 되고, 국민이 힘을 가지고 나선다면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형구 기자



스웨덴 탈북꽃제비 강제송환 중지 기자회견에서. ©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스웨덴 탈북꽃제비 강제송환 중지 기자회견에서. ©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GODIVA

Belgium 1926

NEW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 컬렉션
큐브 트뤼프 & 골드 디스커버리

소중한 분들에게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제품문의 080 827 7700 www.godiva.kr

한국복음주의협의회 2월 월례회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강연(1)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한 편으로는 빛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어둠이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빛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한류를 통해 복음의 한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 세계 역사의 행동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이 기독교인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은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4만 여명이 모여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1주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방탄소년단 공연을 기다렸다고 한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 그리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한류 열풍은 거세다. 최근 동아시아 컵에서 베트남 축구팀이 10년 만에 우승을 했고 베트남 국민들은 모두 “박항서”를 외쳤다. 이는 2002년 광화문 광장의 환호와 축제를 연상시키며 한류를 실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에 한류를 흐르게 하실까? 이런 질문만 던져 보면, 다른 종교를 학화시키거나 박멸하려는 세력의 중요한 운동 때문이다. 요즈음 가장 극성을 부리는 기독교적대세력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 전도금지 → 성서금서 → 기독교 박멸’의 방향으로 이 세력에 맞서 ‘헌한 싸움’을 하지 않고 침묵 방관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러다가 기독교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한국교회 상황이 어둠이라는 것은 교회의 정제와 쇠퇴, 내부 부패, 분열과 무가력, 이단과 타종교의 압박, 그리고 기독교를 학화시키거나 박멸하려는 세력의 중요한 운동 때문이다. 요즈음 가장 극성을 부리는 기독교적대세력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 전도금지 → 성서금서 → 기독교 박멸’의 방향으로 이 세력에 맞서 ‘헌한 싸움’을 하지 않고 침묵 방관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러다가 기독교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세력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제성을 파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보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세력에 맞서 ‘헌한 싸움’을 하지 않고 침묵 방관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러다가 기독교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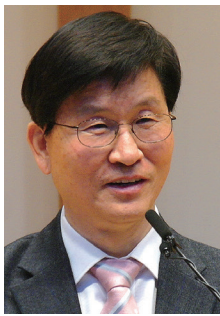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한국교회 상황 앞에서 이사가 60장 22절 말씀을 떠올린 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실 것을 바벨론에서의 귀환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고 싶은 갈망이 끓어오른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야성적 초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야성적 초심을 회복하고 키울 수 있었는가?

1. 야성적 초심의 상실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 노형규 기자

요한계시록 2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나오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보인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4절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그 다음 절인 5절에 나오는 “처음 행위”이다. 그것이 한글개역개 정에는 “처음 행위”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처음 행위들”(‘프로타 에르가’)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들”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 9-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AD 53년 경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2년 반이라고 하지만 2년으로 잡아) 날마다 강론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소아시아에 가득 차게 만들었다.

어떤 사본(Western texts)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시간으로는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을 강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면 매일 4시간 성경을 강론한 셈이다. 적게 잡아 1년 300일을 강론했다고 하면, 하루 4시간씩 2년 600일 동안 총 2,400시간 강론한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주 하루 주일 예배 시간에 30분 성경을 강론한 것과 바울 사도가 강론한 것을 한 번 비교해 보라. 우리나라에서 매주 30분, 그것도 성경을 충실하게 강론했다고 할 때, 1년간이면 몇 시간 강론할 수 있는가? 1년이 52주이지만 대충 50주로 잡고 계산하면, 1년에 24시간 성경을 강론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성경 강론하는 것에 비하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론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100년 동안 하는 분량이다.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4시간 성경을 강론했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했을까 짐작할 수 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마치 스편지로 물을 빨아 먹듯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할 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로 소문을 내서,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전도를 해서, 2년 만에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이런 ‘처음 행위’가 있었다. 그들이 말씀 강론을 사모했다면, 말씀 강론이 핵심인 예배가 살아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예배를 사모해서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면, 식탁 교제가 살아 있었을 것도 자명하다. 말씀 청취, 예배, 전도, 교제 등이 다 살아 있었던 것이다. 예배 행위, 전도 행위, 설교 청취 행위, 교제 행위 등 ‘처음 행위들’이 다 살아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을 청취할 뿐 아니라 청취한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개혁하는 작

업을 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5만 드라크마에 상당하는 마술 서적을 불태워 버렸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이다. 요즈음 노동자 하루 품삯을 대충 잡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5만 드라크마라면 50억 원이다. 에베소 교인들이 50억 원어치 마술 서적을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철저하고 단호한 ‘순종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17-3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AD 55년 경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불러 그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부두에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에까지 그를 전송”했다(행 20:36-38).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사랑의 초심이 있었다.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초대 교인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행 2:42).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2:44-46). 예루살렘 교회도 말씀 청취, 기도, 교제, 자선, 모임 등의 ‘처음 행위들’이 살아 있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말라는 엄명(嚴命)을 당국자들로부터 받았지만 복음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행 5:28).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서 공회” 앞을 났다(5:41).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5:42). 초대교회 사도들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중단 없이 계속 하되 목숨을 걸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예배, 설교 청취, 전도, 기도, 교제, 사랑 등의 살아 움직이는 ‘처음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은 15개의 동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첫 사랑’은 그 동사적 표현인 ‘처음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추상 명사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사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AD 53년과 55년으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 집필한 AD 95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에베소 교회가 40년 만에 ‘첫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들’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의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해서 형편없는 교회였는가? 그렇지지는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행위(행위)에 원문에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들이 ‘수고’의 차원에서 있었고,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인내’의 차원에서 있었다(계 2:2). 이것은

강연

“야성적 초심의 회복과 분출”

AD 95년 경의 에베소 교회는 정통행위(ortho-praxy)가 있었다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는 또한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니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폭로하는 정통교리(orthodoxy)가 있었다(2:2). 특별히 당시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생활과 사업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종교행위로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도 괜찮다는 ‘니콜로당’ 이단을 폭로할 정도로 정통교리를 철저하게 지켰다.

AD 95년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통교리와 정통행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의 ‘첫 행위들’을 버렸다고 하셨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리와 정통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첫 사랑’의 차원과 ‘처음 행위들’의 강도(強度)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는 정통교리와 정통행위가 있는 있었지만, ‘불 없는 난로’와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수액을 공급받고 그 수액이 약동하고 열매로 분출해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7-8, 11).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어 있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이 약동하고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이 흘러간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이 약동하고 흘러갈 때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분출된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체험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첫 사랑’의 ‘처음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다. 우리가 ‘첫 사랑’의 ‘처음 행위들’을 분출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동전의 양면처럼 체험하게 된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요 4:14; 10:10),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때에 가슴에 빛을 흐르듯 조금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하(大河)처럼 풍성하게 도도히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생수의 강(원문에는 ‘강들’)이란 뜻의 ‘포타모이’이 흘러”간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을 체험하고 흘러가게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16장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인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늘 접촉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고 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지금의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할 때 어떤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나 책망이 다 달랐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개교회는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이지 못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는 정통교리와 정통행위가 있는 있었지만, ‘불 없는 난로’와 같았다.

한국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첫 사랑’의 ‘첫 행위들’이 있는가? 가령 매일 4시간씩 2년간 성경 말씀 강해를 들을 수 있는 청취력과 수용력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와 갈망과 청취와 순종이 있는가?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을 전할 만큼의 전도의 열정이 있는가? 매일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 교제를 하고 점심을 먹고 식탁교제를 할 정도의 교제가 있는가? 부두에 다른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서로 목을 안고 울면서 전송하는 사랑이 있는가?

초창기 한국 교회의 경우 밤 집회를 5시간이나 계속한 경우도 있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 장대현교회에서 겨울 낚자 평안남도 사경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아침 경건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30분 동안 찬양, 3시간의 성경 공부, 오후 전도,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집회가 이어졌다. 1월 14일 저녁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조지 매쿰(George McCune)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어제 저녁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집회는 새벽 2시에야 끝났습니다. 하나 둘씩 일어나 자신들의 죄-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악과 싸우며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면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양 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의 부흥회가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은 한 주에 한 번 하는 주일설교도 30분이 넘으면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은가? 전도의 열정은 사라지고 교인들 중에서 1/10정도가 일년에 한 사람 정도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가? 주일 예배 때 그것도 아는 교인 몇 사람과만 악수하고 인사며 마다 정도하는 교제가 고약이 아닌가? 세계의 다른 교회에서 찾기 힘든 새벽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교인 중 1/10도 나오지 않고 금요기도회에는 교인 중 1/4정도가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물질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사랑이 있는가?

이단과 이မ် 서클도 자기들의 사상 공부에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다. 신천지의 경우 한 주에 며칠씩

모여서 자기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정통교회의 교인이 신천지에 가서 9개월만 공부하면 신천지 교수가 되어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면서까지 자기네 사상을 포교한다.

한 때 대학생 이념 서클에 들어가서 2개월만 사상학을 하고 나면 형사를 쓰는 열성분자가 되었다.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그리스도인 대통령 후보가 신앙간증을 하고 나가는데 그의 자동차 앞에 이념서클의 어떤 여학생이 누워서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 도대체 막스-레닌의 이념(Marxism-Leninism)이 무엇이기에 학생을 저렇게 돌변하게 하는가 싶었다.

몇 개월 전 장신 김철홍 교수의 간증형 강의를 듣게 되었다.

김철홍 교수가 한국 명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특정 이념 혁명그룹을 만들어 학습을 할 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념학습을 했다고 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중 점심시간과 낮잠과 저녁 시간을 빼면 하루 9시간씩 이념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상토론을 할 때 문방구에서 노트를 사서 한 권씩 나누어서 노트를 다 채울 정도로 이념을 기록하고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도 한다.

김철홍 교수는 후에 그 이념그룹에 소속된 학생들이 혁명에 성공한 후에 대기업을 조련 작은 기업체를 차고앉아서 고급 자동차를 타고 평평 거리고 살 이기적인 꿈을 꾸고 있다는 현실에 실망을 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유학을 가서 바울신학을 연구하면서 막스레닌 사상을 능가하는 바울신학을 통해서 사상개종을 하고 지금은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김철홍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나 이념서클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 보았다. 나 자신부터 이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서는 물론 신학교에서조차 그렇게 철저한 말씀 연구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의 ‘첫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청취와 적용 면에서만 봐도, ‘첫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된다. 초창기 한국 교회 교인들의 말씀 청취와 적용과 비교해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사랑’을 버린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단과 이념 서클의 잘못된 사상 학습과 인생을 건 실천행동과 비교해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 사랑’의 ‘첫 행위들’을 버렸다는 인지하고,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첫 사랑’의 ‘첫 행위’는 요즘의 용어로 야성적 초심이라고 볼 수 있다. 초심은 첫 사랑의 순수하고 뜨거운 첫 마음이다. 야성은 인생을 건 초심의 태도와 표현이다. ‘첫 사랑’의 야성은 타성이 아닌 야성, 야욕이 아닌 야성이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야성적 초심을 상실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야성적 초심을 상실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계 속)

자료제공=한국복음주의협의회

다산의 마지막 공부

이승민 지음

“내 인생의 건립들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희개가 평생 새벽마다 탐독했던 책
다산이 생의 마지막에 붙들었던 책
지적 거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천년의 교린. <심경>

출간 즉시 전국 베스트셀러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 <심경> 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반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마음공부의 ‘끝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초판에 지름 1장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공부 천년의 내공

초판에 지름 1장 15,000원

창원출판

Tel. 02-546-4341 Fax. 02-546-8053 www.chungnam.co.kr

